

학교생활

수행평가 주제와 일정,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덜렁대는 고1 남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수행평가가 내신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남자아이라 그런지 수행평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수행평가가 있는지도 모르고 학교에 갔다와서 오늘 수행평가 봤다고 전하는 수준입니다. 미리 수행평가 일정이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수연(45·서울 중구 신당동)

A 학교 알리미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교과별 평가 계획을 찾아보세요.

모든 학교는 대국민 정보 공시 제도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학교 알리미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서울 용문고 최낙원 교장은 “교과별 평가 계획이 포함된 학업 성취 사항은 정보 공시 항목이다. 학교는 연간 평가 계획을 수립해 연 2회, 4월과 9월 학교 알리미에 공시해야 한다. 학교에 따라 홈페이지에 같이 공시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수행평가의 내용과 일정에 관한 사항은 학교 알리미(www.schoolinfo.go.kr)> 학교명 검색> 학업 성취 사항> 교과별(학년별) 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교과별(학년별) 평가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과별 평가 계획에는 연간 수업 계획, 평가의 종류와 반영 비율, 수행평가 세부 계획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행평가 주제와 관련된 사항은 비교적 명확하게 공개되는 반면 일정에 대해서는 학교에 따라 1학기 또는 2학기로 구분하는 곳도 있고 정확한 제출일과 제출 담당 선생님까지 명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

MORE TIP

최 교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기초에 수립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계획이 수시로 변경됐다. 또 과제형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없고 현장 관찰형 수행평가만 가능한 데다 등교 일수까지 줄어 많은 학교가 수행평가를 지필평가로 대체하기도 했다. 변경된 평가 계획을 공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수시로 변경되는 평가 계획을 공시하기가 힘든 학교도 많았을 것이다. 수정된 내용은 해당 학교에 문의해보라”고 조언합니다. 취재 박민아 리포터 minapark@naeil.com



입시

A 감독관의 본인 여부 확인 절차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땐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수험생은 시험장 안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1교시와 3교시, 본인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내려달라는 감독관의 정당한 요구에도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 대입정책과 김재극 사무관은 “모든 수험생은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을 거쳐야 시험장에 들어올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사전에 안내한 시험장에서, 확진자는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 센터에서 수능에 응시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서 대기하며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서울 한영고 박재신 보건 교사는 “수능 당일 분실이나 오염 등에 대비해 마스크 여유분을 준비하는 게 좋다. 점심시간에도 자리 이동을 금하고 있어 수험생끼리 모여 있거나 대화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올해 수능 시험장에서 특별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하고, 모든 책상에 가림막이 설치되는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 지침이 내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이은순(52·서울 은평구 신사동)

무증상	일반 수험생	일반 시험장	일반 시험실
유증상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별도 시험실
확진자	코로나19 진단받고 입원(치료) 상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격리자	격리 통지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별도 시험장	

자료: 교육부

MORE TIP

수능 시험장 책상에는 반투명한 아크릴 재질의 '가림막'도 설치합니다. 수험생 자리 앞뒤로 침방울이 튀는 것을 막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사무관은 “가림막 재질이 너무 투명하면 시험지나 답안지가 반사돼 뒷사람 등에게 보일 수 있고, 너무 불투명하면 수험생의 부정행위 여부를 시험 감독관이 지켜보기 어려워 직접 시연을 가진 뒤 가림막의 투명도를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tojunga@naeil.com